

한국스타 노조위원장 등 5명 구속 조합원들 가톨릭 여성회관서 농성

【마산】 두달이 넘게 직장폐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마산수출자유지역 내 한국스타 조합원 80여명은 손성란(28) 위원장 등 노조간부 5명에 대한 구속에 항의하며 지난 1일부터 마산 가톨릭 여성회관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.

한국스타의 직장폐쇄와 대량감원조치에 항의, 현대정공 등 타 노조 조합원들이 지난달 27일 한국스타 조합원들의 농성을 지원하게 되면서 28일 새벽1시 마산 동부경찰서는 공권력을 투입해 농성자 전원을 연행하고 이중 손위원장 및 전윤희 비상대책위원장, 현대정공 노조간부 3명을 구속했다.

이튿날인 29일 조합원 1백여명이 위원장 등의 구속에 항의하며

동부경찰서 앞에서 농성을 벌이자 경찰서 측은 다시 진명희 부위원장 등 노조간부 3명을 연행, 영장이 기각됐음에도 전격 구속시켰다.

이 과정에서 회사측은 노조에 남아있던 조합원을 모두 현장 밖으로 쫓아내고 남성노동자를 현장에 배치, 조합원들의 노조 출입을 완전히 봉쇄하고 있으며 회사 내 물량을 계속 밖으로 빼내고 있다.

이에 한국스타 조합원 80여명은 지난 1일 가톨릭 여성회관에서 농성에 돌입하고 ▲직장폐쇄 및 감원철회 ▲구속동지 전원 석방과 원직복직 등을 요구하며 투쟁을 계속하고 있다.